길잡이글(예일판 편집자 존 E. 스미스 서문, 정성욱 역)

길잡이글 · 본문에 대한 설명

『신앙감정론』 예일판 편집자 존 E. 스미스의 서문(길잡이글) 5장 「본문에 대한 설명」, 인쇄 115~127쪽

🧭 흐름 한눈에

편집자는 먼저 『신앙감정론』의 완성 원고가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힙니다. 남은 것은 준비 노트와 비판에 답한 단편 몇 장뿐입니다. 그래서 1746년 초판을 가장 믿을 만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어서 후대 판본들의 첫 두 단락을 나란히 놓고, 여러 편집자가 "독자에게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본문과 각주를 줄이고 고쳐 썼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특히 고든의 요약판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웨슬리판이 어떻게 원문에서 멀어졌는지, 웨슬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소개합니다. 끝으로 에드워즈가 청교도 저술과 성경을 인용한 습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일판이 인용 출전을 하나하나 찾아 확인했다는 편집 원칙으로 마무리합니다.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절별 정리

📜 1. 남아 있는 준비 노트: 『신앙감정론』의 학습장

드와이트는 『신앙감정론』이 원래 연속 설교였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 설교 원고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일 대학 도서관에 에드워즈의 노트가 있습니다. 설교 소책자처럼 반드짐로 묶은 20쪽짜리 '학습장'으로, 책을 쓰기 위한 준비

저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메모 가운데 몇몇은 2부의 소극적 표지, 3부의 12표지와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 '새 감각'은 자연적 감각들을 섞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강조
- 감정의 모조품과 상상의 속임수를 거부하는 내용
- 12번째 표지인 그리스도인의 행위

특히 “참된 은혜는 행위를 동반하지만 가짜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문장이 참과 거짓의 '주된 차이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19쪽에는 다른 사람의 신실성을 판단하는 문제를 다룬 '신학묵상집' 1000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에드워즈는 나무를 잎이나 꽃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책의 서문과 2부에서 다시 나옵니다.

1. 설교 원고는 없고 준비 노트만 남음
2. 2부·3부 표지의 뼈대가 노트에 이미 있음
3. 새 감각은 자연 감각의 조합이 아님
4. 참 은혜와 가짜 은혜의 차이는 행위
5. 잎·꽃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

> **(재료에 장절 인용 없음)**
> 열매 비유는 예수님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복음 7:16)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 글에는 구절이 적혀 있지 않음. 대본에 쓰려면 본문 장에서 확인 필요

“나무의 잎이나 꽃으로가 아니라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

📜 2. 앤도버 단편: 비판에 대한 에드워즈의 답

앤도버 컬렉션에는 인쇄된 성명서 뒷면에 적은 단편이 있습니다. 『신앙감정론』의

끝나기 때문에 언제, 누구와의 논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룬 주제는 네 가지입니다.

-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지, 성도들만을 위해 죽으셨는지
- 구원의 확신이 인간의 앎으로 가능한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사실 자체로만 가능한지
- 책에서 말한 '새로운 본성'의 '본성'이 무슨 뜻인지
- 성령이 자신의 본성을 성도에게 전하신다는 주장에 대한 변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제입니다. 에드워즈는 성령이 자신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거룩함'을 전하신다고 답합니다. 성도 안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본질은 같지만 정도에서는 무한히 차이가 납니다. 또 새 감각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관이나 능력이 하나 더 붙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1. 성령론 비판에 대한 답변 단편
2. 성령은 본질이 아니라 거룩함을 전하심
3. 성도의 은혜는 본질 같고 정도 무한 차이
4. 새 감각은 새 인격 기능이 아님
5. 역사적 정황은 알 수 없음

> **(재료에 장절 인용 없음)**
> 편집자가 단편의 내용만 소개함

📜 3. 기초 본문: 1746년 초판과 예일판의 편집 원칙

위의 원고들 말고는 본문을 보충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판된 초판이 지금도 가장 권위 있는 기준입니다. 예일판은 닐랜드가 1746년 보스턴 퀸가에서 펴낸 초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손댄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문자 사용을 크게 줄임

반면 'ben't', 'han't' 같은 18세기 축약형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수사적 효과를 위해 쓴 'em', 'tis' 같은 표현도 살렸습니다. 읽기 쉽게 하려고 조금 다듬은 것 말고는 초판을 충실히 재생했다는 것이 편집자의 원칙입니다.

1. 완성 원고 없음, 초판이 기준
2. 1746년 보스턴 닐랜드 판
3. 대문자·철자·오자만 손봄
4. 옛 축약형과 수사 표현은 보존

> **(재료에 장절 인용 없음)**
> 편집 원칙 설명

"처음 출판된 초판이 여전히 권위 있는 안내서다"

📜 4. 판본 비교: 첫 두 단락이 어떻게 바뀌었나

편집자는 여섯 판본의 첫 두 단락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1746 초판, 1801 웨슬리판, 1808 우스터판, 1829 드와이트판, 1824 로링 제2판, 1833 전미 소책자협회판입니다. 이 단락은 책의 본문 성구를 풀이하는 부분입니다. 사도가 박해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를 그리고, 앞의 두 절에서 '믿음의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함'을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초판에서 에드워즈는 시련이 참 신앙에 세 가지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시련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가장 잘 갈라 보여 준다는 점입니다. 금을 불로 시험하듯 신앙고백자(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종류인지 드러나고, 참된 믿음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스터판은 초판에 가깝습니다. 드와이트판은 문장을 줄였습니다. 웨슬리판·로링판·소책자협회판은 '세 가지 유익'을 번호나 대문자로 정리해 아예 새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진리의 드러남, 아름다움의 드러남, 순결하게 함이라는 식입니다.

1. 여섯 판본의 첫 두 단락 비교
2. 본문 성구는 박해 속 성도의 마음
3. 시련은 금을 불로 시험하듯 믿음을 가름
4. 후대판은 '세 유익'을 재구성
5. 초판 보존의 중요성 입증

> **베드로전서 1:8**
> 『신앙감정론』의 본문 성구. 박해 속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
>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 **베드로전서 1:6**
>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함', 즉 박해라는 배경
>
>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 **베드로전서 1:7**
> '믿음의 시련'을 불로 시험하는 금에 비유. 참된 믿음은 칭찬·존귀·영광을 얻음
>
>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 5. 요약판들의 문제와 각주 훼손

여러 시기에 여러 사람이 대중용 요약판을 냈습니다. 1817년 런던에서 나온 엘러비판은 에드워즈의 언어를 더 명확하고 활기 있게 만들고 반복을 생략하겠다고 했습니다. 편집자는 이런 판이 원문에 충실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집판은 작품을 '더 낫게' 만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충실한 편입니다. 그중 우스터판이 드와이트판보다 낫지만, 각주를 너무 자유롭게 고쳤습니다.

거의 모든 편집자의 생각은 같았습니다. 이 책은 중요한 복음적 논문이라 모두가 읽어야 하는데, 일반 독자에게 너무 어려우니 다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각주와 각주 속 인용문을 함부로 고친 일입니다. 대부분의 판은 각주를 빼 버렸고, 앞뒤만 남기고 가운데를 잘라 낸 판도 있었습니다.

『신앙감정론』에는 17명의 작가와 30권이 넘는 작품이 인용됩니다. 대부분 당시에도 귀했던 17세기 영국 청교도의 책입니다. 에드워즈는 독자들이 그 책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긴 인용문을 각주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예일판은 이 인용문들을 처음으로 원문과 대조해 확인하고 필요한 곳을 고쳤습니다. (편집자 각주는 19세기 미국 독자 대부분이 원문과 크게 다른 소책자협회 요약판으로 이 책을 읽었다고 덧붙입니다.)

1. 요약판은 원문 충실을 기대 못 함
2. 동기는 “중요하지만 너무 어렵다”
3. 최악의 잘못은 각주 삭제·축약
4. 17명 작가, 30권 넘는 청교도 인용
5. 예일판이 처음으로 인용 원문 확인

> **(재료에 장절 인용 없음)**
> 판본사 설명

📜 6. 판본의 역사: 고든판에서 '제4판'까지

『신앙감정론』은 에드워즈의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읽혔습니다. 미국·영국·스코틀랜드에서 단행본으로 거듭 나왔지만, 에드워즈 생전에 나온 것은 1746년 초판 하나뿐입니다. 판본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62년 런던: 첫 외국판이자 첫 요약판. 윌리엄 고든이 본문을 삼분의 일가량 줄이고, 많은 각주를 빼고, 수백 곳을 다시 썼습니다. 그 이유는 3부 '첫째 표지'에 붙인 자기 주석에 드러납니다. 저자가 일반 독자에게 너무 어려운 논지를 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외국판은 가장 믿기 어려운 판이

- 1772년 에딘버러판: 외국에서 처음 나온 정확한 판입니다.
- 1774년 런던: 조지 키스가 1768년 뉴욕판을 기초로 '제4판'을 냈습니다. 고든판을 빼고 충실한 판만 세면 네 번째가 맞는 이름입니다. 미국판을 기초로 삼아 고든판의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1. 생전 출판은 1746 초판 하나
2. 1762 고든판은 삼분의 일 축소
3. 이유는 '첫째 표지'가 어렵다는 것
4. 1772 에딘버러판이 첫 정확한 외국판
5. 1774 키스 '제4판'은 미국판 기초

> **(재료에 장절 인용 없음)**
> 판본사 설명

📜 7. 웨슬리판과 웨슬리의 해석

1801년 런던에서 나온 존 웨슬리의 요약판은 본문으로도 신학으로도 흥미롭습니다. 웨슬리는 원문이 아니라 고든판을 바탕으로 작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엘러비판 다음으로 원문에서 멀어졌습니다.

웨슬리는 '독자에게 드리는 글'(1773년 9월 1일 서명)에서 이유를 밝힙니다. 웨슬리가 보기에 에드워즈는 이전 저술에서 부흥을 성령의 참된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745년 무렵 부흥을 경험한 많은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참된 신자도 믿음에서 완전히 파선할 수 있다”는 결론을 피하려고, 그들이 처음부터 참 신자가 아니었다고 증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형이상학적 구분들을 만들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도 웨슬리는 이 책을 훌륭한 복음적 작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판으로 '건강한 양식'과 '죽이는 독'을 가려 단순한 사람들에게 주려 했습니다. 이 요약판은 웨슬리 생전에는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편집자는 각주에서 웨슬리가 에드워즈를 오해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전 저술은

견해를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같은 표지로 참된 회심이 많았다고도, 신실해 보였던 많은 사람이 회심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1779년 위트레흐트에서 화란어판, 1883년 웨일즈어판이 나왔습니다.

1. 웨슬리판은 고든판을 바탕으로 한 요약
2. 웨슬리는 배교 문제 회피용 구분이라 봄
3. 그래도 복음적 작품으로 인정
4. 편집자는 웨슬리의 오해라고 판단
5. 표지는 참 회심과 거짓 회심을 함께 가름

> **(재료에 장절 인용 없음)**
> 판본·해석사 설명

📜 8. 에드워즈의 인용 습관과 예일판의 출전 확인

에드워즈는 다른 저자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 존 스미스의 강론 두 쪽, 토머스 셰퍼드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24쪽 이상, 그리고 스토다드와 플레이블 등입니다. 18세기에는 책이 귀했습니다. 특히 외국 책은 구하기 어려웠고, 겨우 구해도 곧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급히 베낀 발췌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 결과 직접 인용이 원문과 글자 그대로 일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꿔 말한 부분을 직접 인용과 함께 인용부호로 묶음
- 시제를 바꾸거나 관사·대명사를 뺌
- 떨어진 문장을 생략부호 없이 이어 붙임
- 출전으로 첫 줄이나 마지막 줄의 쪽수만 적음

그렇다고 자료를 심하게 왜곡한 것은 아닙니다. 에드워즈는 자기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필요한 단락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짧게 넘겼습니다. 자기 입장을 다듬고 변호하는

편집자는 모든 인용문의 출전을 찾았습니다. 판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에드워즈가 쓸 수 있었던 판, 곧 초판이나 1746년 이전 판에서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셰퍼드의 인용은 1660년 초판이 아니라 1695년 판과 일치해서 1695년 판을 썼습니다. 인용문은 에드워즈의 인용 습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초판 그대로 실었습니다. 성경은 에드워즈가 처음부터 끝까지 킹 제임스판을 썼습니다. 장·절 번호가 분명히 틀린 곳만 고쳤습니다. 초판에 이사야 3:4로 적힌 것이 실제로 3:6이면 고치는 식입니다.

1. 존 스미스·셰퍼드·스토다드·플레이블 인용
2. 18세기에는 기억과 발췌에 의존
3. 인용은 조금씩 변형, 의미는 보존
4.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배움
5. 성경은 킹 제임스판, 장절 오류만 수정

> **이사야 3:6**
> 초판에 '3:4'로 잘못 적힌 장절을 바로잡은 예 (편집 원칙의 사례)
>
>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 오해와 반론

📖 용어

초판
책이 처음 인쇄되어 나온 판. 『신앙감정론』은 1746년 보스턴판이며 에드워즈 생전 유일한 판입니다.

요약판

학습장
에드워즈가 책을 쓰기 전에 생각을 정리한 바느질 묶음 노트.

신학묵상집(Miscellanies)
에드워즈가 평생 번호를 붙여 적은 신학 메모 모음. 1000번은 남의 신실성 판단을 다룹니다.

새 감각
거듭난 사람에게 생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맛보아 아는 감각. 기존 감각의 조합도 새 기관도 아닙니다.

본성
앤도버 단편에서는 성령이 전하시는 '거룩한 성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본질)와 구별됩니다.

소극적 표지 / 적극적 표지
2부의 '참 신앙의 증거도 반증도 못 되는 것'과 3부의 '참된 은혜의 증거가 되는 12가지'.

신앙고백자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참 신자일 수도 있고 위선자(겉모습만 신자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킹 제임스판
1611년 영어 성경 번역본. 에드워즈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했습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신앙감정론』의 완성 원고는 없고, 1746년 초판이 가장 믿을 만한 본문입니다.
- 후대 요약판들(고든·웨슬리·엘러비·소책자협회)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본문과 각주를 크게 바꿨습니다.
- 준비 노트와 앤도버 단편은 새 감각, 열매로 판단하기, 성령이 거룩함을 전하심 같은 핵심 사상이 처음부터 분명했음을 보여 줍니다.
- 에드워즈는 청교도 저자들을 목적에 맞게 인용했습니다. 예일판은 그 출전과 성경 장절을 일일이 확인해 초판 그대로를 재생했습니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